



알앤엘바이오

AI 극복 제안서 공모



알앤엘바이오(대표 라정찬)는 조류인플루엔자(AI) 극복을 위한 축산인들의 '제안서'를 공모했다. 제안서 내용은 알앤엘바이오의 친환경 소독제 '스누캡' 사용후기와 AI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축산물 소비촉진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등이다.

기간은 6월 24일까지로 이미 접수완료되었고, 당선자는 개별통지 및 축산관련 신문에 게재할 예정이다. 심사는 알앤엘이 위촉한 축산대학 교수와 관련기관 단체장이 맡기로 했다. 당선작 1등 2명에게는 선진국 문화체험이 주어지는 등 푸짐한 상품이 지급된다.

(주)중앙백신연구소

창립40주년 기념 지리산 1박2일 중주대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중앙백신연구소가 1박2일의 일정으로 성삼재에서 출발하여 천왕봉 등반 후 중산리로 하산하는 지리산 중주를 성공리에 마쳤다. 1968년 12월 6일故윤지병 박사에 의해 설립된 중앙백신연구소(대표이사 윤인중)는 6월 12일 사내 임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동물용 의약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희생된 생명들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예를 올리는 수훈제를 시작으로 장기근속자들에게 대한 표창과 함께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짐을 가졌다.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

계란소비촉진 캠페인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대표이사 장원철)는 5월 31일 양재동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AI와 관련해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양계산물의 안전성 홍보, 가금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등산객 및 일반인들을 대



상으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을 먹어서는 시에 절대로 걸리지 않으며, 음식으로는 단 한 건도 시에 감염된 사례가 없음”을 전단지과 구운 계란 2,000개를 나누어 주며 적극 홍보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장 대표는 “이런 소비촉진 홍보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과 의심을 불식시켜 침체된 가금산업에 작으나마 힘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중앙분석센터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동사 산하 중앙분석센터는 지난 5월 27일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표준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제인정 공인시험기관이 되었다. 2005년 6월 1일 개소해서 불과 3년 만에 까다로운 국제수준의 ISO/IEC 17025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에 따라 각종 분석 장비보유와 활용 기술의 숙련도, 우수한 연구 인력과 시험환경 그리고 시험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현장 검정 등의 모든 항목에



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제적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고객들에게 분석결과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성 및 기술적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주)씨티씨바이오

창립 15주년 기념 2020 비전 선포 및 체육대회



(주)씨티씨바이오(대표이사 김성린, 조호연)는 지난 5월 24일 창립 15주년 기념 체육대회를 실시하며 2010년까지의 목표인 JUMP UP CTC 1, 2, 3, 4(연매출 1천억 원 달성, 경상이익 2백억 원 달성, 연매출 10억 이상 히트제품 30개 출시, 글로벌제품 4개 출시)에 대한 중간점검 및 2020 비전선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를 계획한 경영전략기획실 정희경 차장은 “금번 창립 1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전 직원들이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열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CJ

국제공인시험기관 업계 최초 인정과 추가 갱신 인정

CJ제일제당 사료BU(부사장 박호인) 사료/축



산연구소가 국내 배합사료업계 최초로 KOLAS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으며 정기적 사후관리 및 갱신평가와 추가 인정을 획득함에 따라 세계적인 기준에 접합한 능력을 갖춘 시험기관으로 공인 받는 쾌거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2002년 11월 국내 사료업계 최초로 6개 항목에 대한 KOLAS 인정을 획득했으며,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07년 6월 갱신평가 및 추가인정을 위한 항목 4개에 대해 KOLAS 사무국 주관 하에 1년여 동안 엄격한 평가를 받고, 지난 5월 국제공인 시험기관이 됐다.

쓰촨성 대지진 성금 3억 기부



CJ 그룹은 19일 중국 쓰촨성 대지진 복구 성금으로 200만 RMB(원화 약 3억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베이징에 있는 CJ 중국

본사와 상하이에 있는 홈쇼핑 현지 법인인 '동방CJ'가 중국 적십자 등 현지 관련 단체를 통해 이뤄졌다.

CJ 중국 본사 박근태 대표는 "CJ도 중국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빠른 복구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성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금번 성금 기부 이외에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지드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 계획

부국사료(주)와 (주)에스씨에프, 에스원마리타임 등 사료업체와 사이로, 선박 등 관련업체들이 주주로 구성된 '코지드'는 지난 3일 법인설립을 마치고 오는 8월까지 캄보디아 측과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코지드는 캄보디아 진출을 위해 설립된 국내 회사로 국내투자 80%, 캄보디아 20%의 비율로 현지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현지에 건조와 저장시설을 갖춘 물리기지를 설치하고 올해 말부터 현지에서 옥수수를 수매해 건조한 후 국내에 반입할 계획이다. 코지드 측은 사업 초기 단계인 2009년까지 농가 수매 방식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 이후 2단계인 2010~2011년까지는 계약재배를 추가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직접 생산에 나설 방침이다. 코지드 측은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앞으로 연해주,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자원 개발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